

## 사무엘상 30.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삼상 28 장 1-25 절)

### 들어가기

블레셋의 침략으로 궁지에 몰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 위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결국 이번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정신이 돌아온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되찾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 1.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출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2 절)

- 1) 여기서 '블레셋'은 가드 왕 아기스를 포함한 블레셋의 모든 족속을 가리킨 것입니다.
  - 곧 이번 전투는 블레셋 다섯 부족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총 공격한 전쟁.
- 2) 이때 다윗은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고 아기스에게 답했습니다.
  - 다윗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아기스에게 애매한 대답을 한 것이라 추측.
  - 아마도 이때 다윗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
- 3) 그런데 아가스는 이런 다윗의 말을 오해하여,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기스의 두 가지 오해
    - ✧ 우선 다윗의 말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승락한 것으로 들음.
    - ✧ 그래서 무슨 보상을 해 줄 것인가로 생각하고 답변했다는 것.
  - 참고로 머리 지키는 자 = '경호 대장' 또는 '시위 대장'을 가리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위대한 용사 다윗이 한낱 이방 왕의 경호를 맡은 신하가 되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은 물론 그를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치욕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국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의 거짓말(행동)은 결국 자신의 인격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죄악(거짓말)이 또 다른 죄악을 불러 들이고, 끝내는 큰 어려움과 시험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블레셋의 침입에 당황한 사울은 급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7 절)

1) 일찍이 사울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몰아내었습니다. (3 절)

■ 참고 : '신접한 자와 박수'

- '신접한 자' = 문자적으로는 '오브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데 사용되는 어떤 미신적인 '형상'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사후세계와 교통한다는 사람을 가리킴. (레 19:31).
- '박수' = '알다'란 의미를 갖는 동사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점이나 마술'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점장이나 마술사들을 가리킴.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이 집권 초기 때에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좇아 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삼상 12 장 14 절)

2) 블레셋의 대군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울은 심히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 사울이 두려워서 떨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표면적으로 블레셋의 대군을 보았기 때문이지만, 내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 참고: 본문의 '두려워서'란 말의 원어는 '야라'란 말로 이는 점층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 곧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목격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후,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는 뜻!

여러 학자들은 (Keil, Clericus) 사울이 크게 두려워 떨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힘의 원천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자기 스스로로 패배에 대한 공포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 주목: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응답해 주셨던 3 가지 방법은?

- 꿈 < 우림 < 선지자
- Fay, '이 3 가지 방법은 저급한 단계에서 보다 고급한 단계의 순서라 보아야 할 것'
- Erdman, '꿈은 그 전달 방법이 간접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최하급의 계시 방법'

■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 -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뎬이 있었을까?

- 일찍이 사울은 놉(Nob)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고,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우림과 둠뎬'이 들어있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하였음! (삼상 22:18-20; 23:6)
- 학자들은 - 당시 사울은 놉의 제사장 대학살사건 이후, 성막을 기브온 자기 궁으로 옮기고, 엘르아살 계열의 아히둡의 아들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 (대상 16:39)

- 이는 사울이 죽은 후, 다윗 시대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기에 타당. (삼하 8:17; 15:24, 29, 35; 대상 15:11)
- 아무튼 그래서 이때 사독이 입은 예봇과 우림과 둠밈은 본래의 것을 본따 만든 모조품일 것이라 추측!

■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 원론적인 이유 - 이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버리셨기 때문 (삼상 15:1-23).
- 방법론적인 이유 - 사울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 신앙적인 이유 - 사울의 죄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
  - 곧 사울은 전쟁과 관련된 승패를 하나님께 묻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만 했다는 것!

우리는 항상 '만날 만한 때에', 곧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하였습니다. (7 절)

- '신접한 여인' = (바알라트 오브)란 말로 '훈령을 다스리는 여인'이란 의미.
  - 곧 죽은 자의 훈령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게 했다는 것.
-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레 19:31), 또 사울 자신이 세운 규범(3 절)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였음.
-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또 다른 삶의 인도자를 찾아 헤매게 됨을 깨달을 수 있을 듯.

3.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8-14 절)

1) 사울은 스스로 변장을 하고, 부하 두 명만을 데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8 절)

-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복장과 장식물을 제거하고, 완전한 평민의 복장을 취하고 찾아 갔다는 것.
- 또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밤에 조용히 움직였다는 것.
- 결국 이것은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상담과 기도 에 힘쓰며, 위기와 시련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 신접한 여인은 사울 일행이 자신을 속여 곤경에 처할 사람들로 오해하였습니다. (9 절)

■ 9 절, '...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 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 이는 신접한 여인이 변장한 사울을 못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증명.
- 그래서 이전에 사울이 모든 신접한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죽인 것처럼, 이들이 자신을 시험하여 잡으려고 하는 줄로 오해했다는 것.

- 3) 이에 사울은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증거로 그녀가 안전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10 절)
- 자신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강박하고 완악해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됨
  - 이것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죄를 범한 것. (출 20:7)

4)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 절)

■ 주목 : ‘신접한 여인의 말’ -> ‘내가 누구를.....불러 올리랴?’

- 이 같은 질문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음부관을 잘 반영하는 것!
  - ✧ 사람이 죽으면 일단 다 '스올'(Sheol), '음부'라 부르는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
  - ✧ 이런 생각은 시체가 땅 속에 묻히는 것과 관련되어 파생된 단순한 개념인 듯.
  - ✧ 그러나 하나님이나 천사는 땅 위의 어느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

- 그러므로 당신 접신녀들은 '스올'(음부)로부터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죽은 자의 세계 또는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었음.

■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 : 사울은 왜 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을까?

-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고, 어찌되었건 마지막까지 자신을 아끼며 조연자의 역할을 담당해주었던 선지자였기 때문.
- 또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상 7:10-12)
- 그러므로 지금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고민하는 자신의 입장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필요한 방안을 알려 줄 것이라 판단.

5) 그런데 사울의 부탁대로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던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크게 놀란 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 절)

■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본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인가?

◆ 크게 4 가지 견해..

①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 임한 것을 그녀가 보았다는 견해 (Josephus, Klein, Keil, Lange)

➤ 이에 대한 반론..

-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 특히 선지자의 영혼을 무당의 술수에 이용되도록 하실 리는 없음!
- 둘째, 혼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13 절의 언급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 3:21; 눅 16:22, 23) 개념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접신술과 같은 거짓 사상과 합치된다(사 29:4)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견해!

② 본문의 '사무엘' 이란 단어 앞에 '이름' 이라는 단어가 필사자의 실수로 빠졌을 수 있음을 간주하고, 그녀는 사무엘의 어떤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다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라는 견해 (Hertzberg)

➤ 이에 대한 반론..

· 뚜렷한 근거없이 원문의 '보고'를 '듣고'로 변경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③ 그냥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그녀가 거짓으로 본 척했을 뿐이라는 견해 (Smith).

· 참고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놀란 이유는 자기 행위는 실제로 죽은 자와의 순수한 접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란 견해..

➤ 이에 대한 반론..

· 첫째, 12 절의 '사무엘을 보고'는 무당의 말이 아닌 본서 저자의 언급.

· 둘째, 주관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떤 형상(혹은 환상)을 보기도 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볼 수 있음.

④ 거짓 혼 (사탄)이 사무엘의 혼인양 행세하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견해 (Luther, Calvin, M.Henry, Grotius, Patrick)

· 바울은 고린도후서 11 장 14 절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6) 자신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하는 여인을 안정시킨 사울은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13 절)

- 이에 그녀는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
- 여기 '신'은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유령’을 가리킨 것. ((Hertzberg, Klein, Smith, etc.)

7) 사울은 그녀가 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14 절)

- 아마도 아직 그녀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측

8) 신접한 여인은 겹옷을 입은 노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 아마도 83 세에 죽은 사무엘의 형상과 평소 입던 겹옷을 사탄이 흉내 내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

9)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신이 사무엘이라 믿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 우선 사울이 결코 사무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
- 곧 사울은 그녀가 '노인'과 '겹옷'을 언급할 때, 자신이 평소 보았던 사무엘의 모습을 스스로 떠올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말을 실제로 믿었다는 것!
- 그리해 사울은 그녀가 사무엘이 올라온 곳이라고 암시하는 곳을 향해, 그저 경외와 존경의 표시로 납죽 절을 한 것이란 사실.

**4.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해 나타난 영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15-19 절)**

1)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15 절).

- ‘나로 분요케 하느냐?’ - 원어는 (히르가즈타니)로 '안식을 방해하다'는 뜻
- 이는 히브리인들의 고대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말
  - 곧 사람이 죽으면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막론하고 지하 세계인 음부(스올)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

2) 이에 사울은 자신이 블레셋으로 인해 커다란 재난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무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3)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로인해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6-19 절)

■ 사무엘이 전한 말을 정리해 보면,

① ‘하나님께서 네 대적이 되셨다’

✧ 칠십역(LXX)의 번역은 '네 이웃의 편이 되셨다'란 의미.

✧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

②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다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자신에게 묻느냐는 반문.

③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증거

✧ 사울의 가장 큰 불순종의 죄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참고: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로 또 가장 비겁하게 방해하고 적대시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기에(신 25:17-19),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고, 사울을 통해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의 사악한 탐심으로 인해 그 기회를 다 망쳐버렸다는 사실.

④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행하셨다는 것’

✧ 곧 지금 사울이 당하는 모든 상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

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붙이실 것’

✧ 여기 '붙이신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어떤 당사자나 나라에게 확실한 승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

⑥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

- ✧ '나와 함께 있다' 는 말은 사무엘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 뜻.
- ✧ 참고로 여기 '네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가리킨 것. (삼상 31:2; 대상 10:2)

5. 사무엘의 말을 다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20-25 절)

- 1) 성경은 사울이 정신적으로 심히 두려워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다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과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해 줄 때,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
  -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타락하던 사울이 당하게 될 비참한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증상이 아니었을까?
  
- 2) 갑자기 쓰러진 사울을 위해 신접한 여인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며 사울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형편이 참으로 초라할 뿐!
  - 이제는 악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음.
  
- 23 절의 여인의 간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주목 ->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 이는 당시 만사가 귀찮은, 그리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울의 탈진된 심리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까?
  
- 3) 이후 신하들의 간절한 권유를 못이긴 사울은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되찾은 후에 밤 늦게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